LOGISIGHT

WEEKLY INTELLIGENCE

WEEKLY REGIONAL ANALYSIS · SOUTHEAST ASIA

동남아 권역 물류 시황 분석

보고기간 09/14~09/20

1. 아시아 역내 물류 네트워크 확대

LOGISIGHT 인텔리전스팀

2026-W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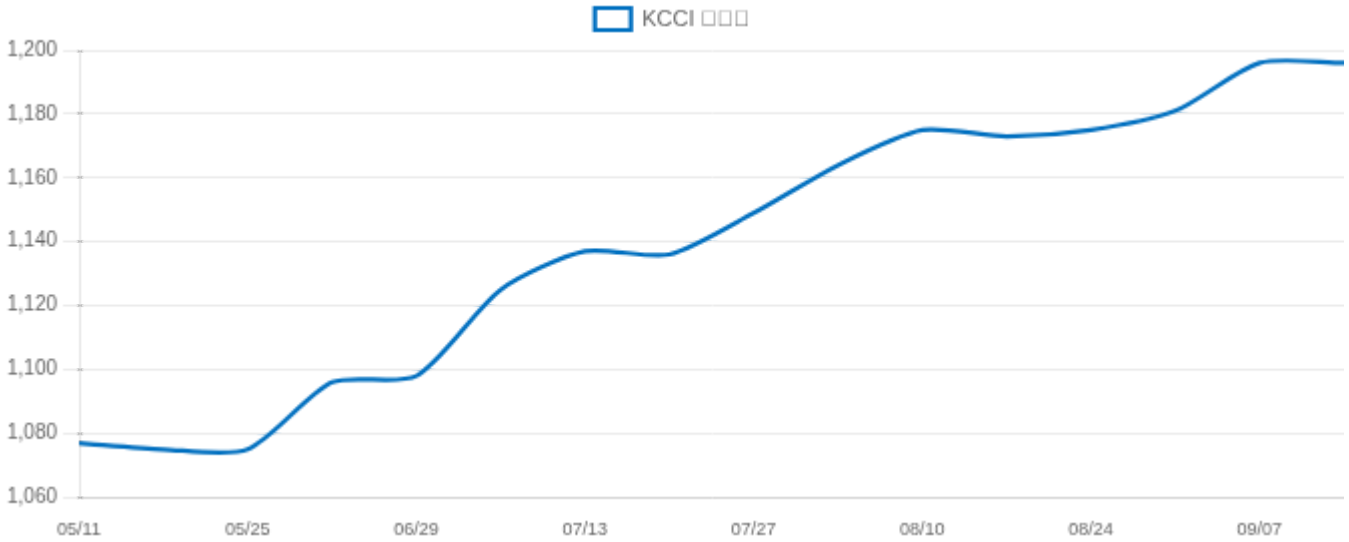
종합

이번 주 동남아 권역은 중국발 생산기지 다변화와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의 구조적 확산으로 아시아 역내 물류 흐름이 재편되는 흐름이 두드러짐. 선사들은 늘어나는 역내 화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네트워크 투자와 협력을 가속화하며, 동남아 주요 항만과 물류 거점의 전략적 가치가 동반 상승함.

이러한 역내 물류 네트워크 확대는 글로벌 공급망의 탈중국화가 단순한 생산지 이전을 넘어 물류 체계 자체의 다변화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함. 역내 교역이 강화될수록 동남아 국가들은 제조업 유치뿐 아니라 항만·운송 등 물류 인프라 경쟁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되며, 역내 경제 통합과 상호 의존성이 더욱 심화될 전망됨.

운임 지표

지수 · 항로	최신값	기준(월/일)	WoW	MoM
KCCI 동남아	1,196 $/FEU	09/14	0.0%	+2.0%



자료: freight_indices (KCCI) · 기준 09/14

아시아 역내 물류 네트워크 확대

> **중국발 생산기지 다변화와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으로 아시아 역내 화물 흐름이 구조적으로 확대되면서, 선사들의 역내 네트워크 투자와 협력이 가속화됨.**

아시아 역내 컨테이너 물동량은 중국 자본의 태국 제조업 투자 확대에 따른 양방향 화물 흐름 형성으로 증가하고 있음. 태국 램차방항의 지난해 물동량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1,015만 TEU를 기록했으며, 태국 정부는 연간 처리 능력을 1,100만 TEU에서 1,800만 TEU로 확장하는 항만 개발을 추진 중임.

이러한 역내 물동량 성장에 대응해 HMM은 기존 장거리 노선 중심에서 벗어나 아시아 역내 네트워크 강화에 나서고 있음. 중국-태국, 부산-램차방-일본·베트남 노선을 운영하며, 2028년부터 1,800~2,800TEU급 컨테이너선 22척을 인도받아 역내 서비스에 투입할 예정임. 또한 Baozhou Shipping으로부터 1,956TEU급 신조선 2척을 인수하여 올해 10월과 내년 1월 각각 아시아 역내 항로에 배선할 계획임.

HMM의 역내 시장 진입은 기존 한국 중견 선사들과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음. KMTC, 신코머천트마린, 동진상선 등은 태국 현지 법인을 통해 조밀한 서비스망을 구축해 왔으며, 역내 시장은 장거리 노선과 달리 서비스 빈도와 지역 연결성이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함. HMM의 선복량과 재무적 우위는 동남아 노선에서 시장 점유율 변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한편 아시아 역내뿐 아니라 인도-동아프리카 노선에서도 다자간 협력이 나타나고 있음. HMM을 포함한 6개 선사(IAL, ONE, COSCO·OOCL, PIL)가 인도 서안과 케냐 몸바사,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을 연결하는 공동 서비스를 개시하며, 특정 해운동맹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협력 모델을 도입함. 이는 아시아발 아프리카 화물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동시에 중소형 선박을 활용한 네트워크 효율화 전략으로 평가됨.

- 태국 램차방항 2023년 물동량 전년 대비 7% 증가한 1,015만 TEU 기록
- 태국 정부, 램차방항 연간 처리 능력 1,100만 TEU에서 1,800만 TEU로 확장 추진
- HMM, 2028년부터 1,800~2,800TEU급 선박 22척 인도 예정, 역내 투입 전망
- HMM, Baozhou Shipping으로부터 1,956TEU급 신조선 2척 인수 (2024년 10월, 2025년 1월 인도)
- HMM 포함 6개 선사, 인도 서안-동아프리카 공동 서비스 개시, 1,800~2,500TEU급 최대 8척 투입

전망

아시아 역내 물동량은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과 생산기지 다변화로 구조적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임. HMM의 대규모 선박 투입과 네트워크 확장은 역내 시장 경쟁을 심화시키고, 중소 선사와의 합종연횡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음. 인도-동아프리카 노선과 같은 틈새 시장에서도 선사 간 공동 운항을 통한 위험 분산과 효율화가 확산될 것으로 보임.

시사점

화주 — 아시아 역내 노선의 선복 공급 증가와 경쟁 심화로 운임 안정화와 서비스 선택지 확대가 기대됨.

포워더 — 역내 네트워크가 확장되면서 태국·베트남 등 동남아발 화물의 복합운송 솔루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선사별 스케줄과 연결성 비교 분석 역량이 중요해짐.

항만·선사 — 태국 램차방항 등 역내 허브항의 처리 능력 확충이 물동량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투자 시점이 중요하며, 선사들은 소형 선대 운용 효율성과 환적 네트워크 연계를 강화해야 함.

참고자료: The Loadstar, HMM, 아시아 역내 공략 강화…태국발 화물 흐름 겨냥 · Linerlytica, HMM 등 6개사, 인도-동아프리카 공동 서비스 개시 (검색일: 2026-09-20)